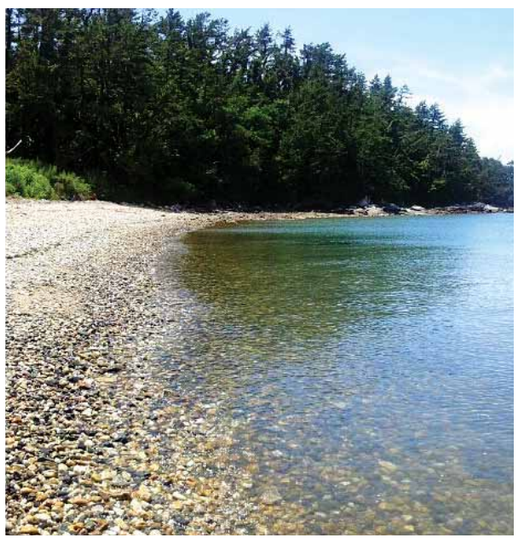
농기계 대신 소가 논밭 갈고 골목길엔 주민이 그린 벽화

마을주민들이 직접 기금을 동원해 그린 마을벽화. 밋밋한 시멘트 벽 240m가 그림 전시관이 됐다.

고흥 거금도에서 바라본 연홍도. 거주 주민은 82명에 불과하지만, 어촌계, 부녀회, 노인회 등 다양한 공동체 조직이 있다.



연홍도의 몽돌해변. 뛰어난 자연여건으로, 여름철이면 1200여명의 관광객이 고정적으로 찾고 있다.

'블루오션'

다도해 <11>

3부 전남도 선정 '가고 싶은 섬'

② 고흥 연홍도

어촌계·개발위원회 등 공동체 조직 활성화

폐교는 미술관으로 탈바꿈 해 50여 점 전시

몽돌해변·갯벌·백사장 등 자연경관 빼어나

어린이 미술 아카데미·힐링 둘레길 사업 추진

82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0.77㎢의 고흥군 금산면 연홍도가 변화의 중심에 섰다. 폐교를 활용한 전국 유일의 섬마을 미술관을 갖추고 몽돌해변, 갯벌, 백사장 등 천혜의 자연 여건에 매년 여름이면 1200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고 있는 이 작은 섬이 2015년 전남도의 '가고 싶은 섬' 사업 대상지가 됐기 때문이다.

주민 수가 100명에도 못미치지만 어촌계(20명), 부녀회(40명), 청년회, 4-H클럽, 노인회(35명), 개발위원회(9명) 등 다양한 공동체 조직이 구성돼 있다. 이 섬의 가장 큰 장점은 섬 발전에 대한 주민 의지다.

◇미술관, 벽화 등 주민들 의지 강해=주민들은 먼저 지난 1998년 폐교된 연홍분교장을 '섬 in 섬 연홍미술관'으로 바꿔 2006년 11월 개관시켰다.

인근의 큰 섬인 거금도에 딸린 작은섬 연홍도의 미술관이라는 의미로, 교실 2동과 관사를 개조해 전시실과 숙소, 식당으로 꾸몄다.

전시실에는 회화작품 50여 점이 전시되고 있으며, 마당은 꽃밭과 쉼터로 조성돼 있다. 예술인들의 체류 창작활동 장소나 단체연수, 주민복지시설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주민들의 자발적인 의지의 성과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마을주민이 마을 기금으로 직접 골목길에 240m의 벽화를 그리기도 했다.

작은 면적이지만, 밭과 초지, 잡종지 등으로 구성된 연홍도에는 농기계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소를 이용해 경작하는 전통이 지켜지고 있는 것이다.

기반시설도 상당히 잘 갖춰져 있다. 오수관로(1.9km) 및 처리장 시설이 조만간 들어설 예정이며, 상수도 시설은 지난 2008년 완비됐다. 도서개발사업 2차(1997~2007) 대상 섬으로 선정돼 도로 포장(1.1km) 및 해안 호안(0.96km)도 정비됐다.

바지락, 문어, 해삼, 감성돔, 멸치, 쏨뱅이, 노래미, 볼락, 농어 등이 풍부하고, 다시마(3가구) 및 미역(4가구)을 양식하며, 매생이, 파래도 특산물이다. 주민 대부분은 농업과 어업을 겸하고 있다.

◇접근성은 물론 자연여건도 뛰어나=연홍도는 거금도와 완도 금당도 사이에 있다. 'ㄱ'자 모양으로 완만한 구릉지여서 섬 곳곳에서 보성, 장흥, 완도 등 뭍은 물론 바다를 바라볼 수 있다.

해안선은 4km 정도로, 몽돌해변, 갯벌, 백사장 등으로 구성돼 있다. 풍부한 수산물 덕분에 해안 갯바위 낚시와 해안가 맨손어업 등으로도 유명해 여름철이면 관광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정기여객선이 하루 5차례 운항할 정도로 뭍과의 왕래가 잦다.

원래는 돌산현에 속했으나 1895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고흥군 금산면에 속하게 됐으며, 300여 년 전 밀양박씨가 처음 섬에 거주하기 시작했다고 전해진다. 넓은 바다 위에 떠 있는 연(鳶)과 같다 해서 연홍도(鳶洪島)라고 불리다가 일제강점기에 거금도와 맥이 이어져 있다고 해연 '연(鳶)'자를 이을 '연(連)'자로 바뀌었다는 말이 있다.

◇문화와 힐링을 주제로 8개 사업 추진=고흥은 연홍도를 전략 섬으로 선정하고 전담 인력을 배치해 사계절 관광객 유치에 나설 방침이다.

첫 번째 사업이 섬 미술관을 이용해 어린이 미술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미술관 주변에 야외 전시관과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다. 또 폐가를 공방으로 조성하고, 야시장을 운영해 젊은 예술가들을 섬으로 유인하는 사업과 함께 마을 안길을 경우하는 반 일주도로 및 힐링 둘레길을 만드는 사업도 포함됐다.

폐가나 공가를 게스크하우스로 운영하는 사업이나 섬에서 생산된 해초류 밥상이나 생선구이 백반 등을 상품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존의 맨손어업 체험, 갯바위낚시나 선상낚시 관련 시설을 보완하고, 동백꽃군락지 조성과 갓 파종과 관련된 마을기업을 창업하겠다는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됐다.

고흥군 관계자는 "연홍도 주민과 고흥군, 방문객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이번 사업의 목표"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